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총무부:** 2018년 교회요람과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 **교육부:** Sight and Sound 성극 "Jesus" 관람
  - 일정: 3/31(토) 오전 11시 공연. 아침 6시 교회 출발합니다.
- 이번 수요일(3/7) 7시, Pleasantville 교회들이 함께 드리는 사순절 수요일예배가 본교회(PUMC)에서 열립니다. 세광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 이번 주부터 소그룹 성경공부반이 시작됩니다:
  - 풍성한 빛: 수요일 오전10시
  - 요한계시록: 목요일 저녁8시
  - 사도바울의 삶과 사역: 토요일 오전7시30분
- 담임목사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Spruce Lake Retreat Center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 다음 주일(3/11)부터 Daylight Savings Time 이 시작됩니다. 한 시간 앞당기시면 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3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이현주 집사 (시 107:1-3, 17-22)

이번 주 친교: 윤정호 집사 / 김민아 집사

다음 주 친교: 신미라 권사 / 최문자 권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Edwin Kim 전도사  
 봉헌찬송 ----- “종으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Philippians 1:27-30** -----인도자  
 설교(Sermon)----- “**Stand firm**” -----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95장 (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19편 ----- 이승택 집사  
 찬양(Choir) ----- “오 깊으신 사랑”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10:7-18; 계 3:20**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5): 목자**”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88장 (통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풍성한 생명(4): 빛 (8:12; 8:1-7, 35-41)**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생전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던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 앞에 펼쳐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론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실제 세상에 눈이 떠졌을 때 자기 상상 속에 그려보던 세상의 초라함에도 눈이 띄었을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어둠을 빛인 줄 알던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둠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고후 4:6).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 것은 안식일날 누군가 치료행위를 함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마치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애써 외면하고 골방에 모여 앉아 손에 든 촛불을 꺼뜨리면 큰일 날듯이 호들갑을 떠는 꼴입니다. 세상의 빛이 임한 줄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어긴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 빛인 줄 알고 진짜 빛을 보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빛이 있다고 강요합니다.

자기 의와 공로를 빛인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임하신 세상의 빛 예수 앞에 나온다면 어둠의 일을 벗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의와 용서를 누릴 뿐 아니라 정죄와 판단을 벗어나 형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본다고 우기며 어둠 가운데 있을 게 아니라 참된 빛으로 나와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빛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목격하러 갔습니다. 내게 빛이 있어서 어둠을 비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빛이 우리과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의 빛에 드러난 우리의 선함은 얼마나 모자란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빛에 드러난 우리의 재주는 얼마나 무력한지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질그릇 됨을 보고, 참으로 구원하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재주와 자랑 섞인 선함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간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의 은혜로 함께 맛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에 함께 하심을 보며 낙심치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에 참된 용서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니기 위해 1) 자기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훈련하십시오. 자기의 공로와 지혜를 빛 삼지 말고(사 50:11),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보십시오. 조금 안다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와 능력 삼으십시오. 스스로 초라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와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이미 아침이 온 것을 알고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눈 앞에 행하십시오(롬 13:12-14). 어둠 속에서는 방탕하고 음란하며 다투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 앞에서 단정하고 겸손하며 사랑합니다.

2) 생각과 심령을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채우십시오. 어리석은 유혹을 이기는 지혜와 거짓을 깨는 진리와 죄를 이기는 거룩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충만할 때(엡 5:18; 골 3:16) 거짓과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